

“전북도 농업기술 집적화”

김관영 도지사 예비후보, 쌀 연구소 조성·사람중심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등 발표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농업기술 집적화와 농민 공익 수당 지원 대상 확대 등을 담은 농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가 쌀·밀·보리 한국 토종 자급사태 부우가 되기 위한 ‘쌀(곡물) 연구소’를 만들어 농진청·농수산대학·도내 대학들과 연계해 농업기술 집적화를 이루겠다”며 “농수산 자급사태를 이루기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물을 가공한 식품들의 유통망을 온·오프 라인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북은 전국 최초로 농가별로 1년에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을 현재 농가 아닌 농민(농업인)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정책자료 및 통계청 자료 등을 기반으로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 인정을 위해 사람 중심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한 나라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 마련 등 농업 인력 수급으로 힘들어하는 농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계 농업인들이 중도에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농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6일 김관영 예비후보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이다.

이탈하지 않고 농업에 집중 가능하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졌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농지확보 등 윈윈 전략을 강화하는 등 후계 농업인력 육성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성 농업인 지원센터를 설립해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호상 기자

지역화폐 ‘다리로움 카드’를 배달, 중고거래 등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정호 예비후보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익산형 공공 전기자전거 ‘이리온’을 도입하고, 도깨비 아시안 막자국골목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흥미로운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는 익산을 캠핑의 대표적 명소로 만들고자 “노지캠핑, 차박명소인 만경강변에 대규모 캠핑장을 조성하고, 농촌지역에 자연친화적인 캠핑장을 확대하겠다”며 “코로나로 지친 익산시민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시민들이 소소한 행복 누리는 익산’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 종합플랫폼 구축 등 정책 발표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심층정책 6단으로, 익산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익산시민의 소소한 행복 정책을 발표했다.

최 예비후보는 먼저, “택시, 배달, 대리 등 심야시간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한 공공 24시 화장실과 보건, 의료 혜택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공공 약국을 설치해 누구나 보편적인 생활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심혈을 기울인 정책으로 익산형 생활종합 플랫폼 구축

을 발표했다.

최 예비후보는 “타 지역 공공 배달업과 차별화 시켜 음식배달, 중고거래, 숙박, 택시, 모바일쇼핑, 관광, 체육시설예약, 구인구직, 부동산, 소상공인소상공민 광고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한 플랫폼으로 모아 놓고, 익산시가 자랑하는

지역화폐 ‘다리로움 카드’를 배달, 중고거래 등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정호 예비후보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익산형 공공 전기자전거 ‘이리온’을 도입하고, 도깨비 아시안 막자국골목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흥미로운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는 익산을 캠핑의 대표적 명소로 만들고자 “노지캠핑, 차박명소인 만경강변에 대규모 캠핑장을 조성하고, 농촌지역에 자연친화적인 캠핑장을 확대하겠다”며 “코로나로 지친 익산시민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소식지
전라북도의회 봄호 발간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 의정활동 소식지 '전라북도의회 2022 봄호(제78호)'가 발간됐다.

제78호에는 지난 2월과 3월 열린 제387회 임시회와 제388회 임시회에서 이뤄진 전북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질문과 5분 발언이 수록됐다.

소식지에는 의정소식 외에도 전북의 농업정책과 대표 계절관광지, 정치발전 등 다양한 읽을거리가 실렸다.

오광근 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장은 “의회 소식지는 도민에게 보내는 도의회의 의정보고서”라며 “도민 여러분께서 살펴보고, 많은 제언과 비판을 해달라”고 말했다.

소식지는 무료로 배포하며, 구독신청은 도의회 홈페이지 (<http://www.assem.jonbuk.kr>)로 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일산화탄소 없는 전주 실현을 목표로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 도시숲 조성,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12일 “생태계와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속에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과제”라며, 연탄보일러 교체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탄소 저감을 위해 도시숲을 조성하고 도시공원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은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보일러를 회수하고 등유, 가스 등 친환경 고효능 보일러로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로 추진한 예정이며, 친환경 보일러는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뿐만 아니라 높은 열효율로 난방비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연탄보일러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이다.

우 예비후보는 “기후변화 대응은 내가 지난 40년 동안 이어졌음에도 해답을 찾지 못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민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보험도입”

서윤근 정의당 전주시장 후보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12일 정책발표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행정이 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2148만 가구 가운데 30퍼센트에 가까운 638만 가구가 한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러가지 부담 때문에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하는 것을 고려한 양육자가 전체의 4분의 1

이나 된다”고 밝혔다.

매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의 행동문제, 경제적 부담, 질병으로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 후보는 이러한 반려동물의 양육 포기나 파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 ▲전주시 권역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러가지 부담 때문에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하는 것을 고려한 양육자가 전체의 4분의 1

인권영향평가 대상, 구체적으로 명시

김이재 도의원, 도민 인권보호·증진 조례 개정안 발의
인권위원 공개모집·인권센터장 응모자격요건 추가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이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라북도 조례(조례, 규칙)와 주요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인권영향평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고,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에 따라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는 정기 인권실태조사(2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전북도 인권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 역할을 인권

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인권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이재 의원은 “전북도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인권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로서 한걸음 더 앞서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아울러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충원이 확정된 인권조사관도 조속히 채용해 도민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사실 근거 않은 언론 보도로 피해”

나기학 도의원, 정면 반박...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

나기학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유한화사 지분 보유에 따른 직무상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한 전주MBC 보도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거를 앞두고 보도 내용이 문자를 포함한 SNS를 통해 선거구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특히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전주MBC 보도를 근거로 소명과정 없이 ‘의식 정치인’으로 분류했다”고 개탄했다.

나 의원은 먼저, “유한화사 성은건설의 지분은 사업 설립 초기 신고한 출자지분이다”며 “도의원 당선 이후 직위를 이용해 회사에 이익이 될 만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도의원 재직 기간 농산업경제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원 활동을 했다”며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문화건설위원회는 기피했다. 이는 전북도의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전주MBC가 제기한 ‘예결산 심의회의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방송은 전후 내용을 모두 생략한 채 ‘지역을 개발할 계획’이라는 위담만 부각하며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며 “발언 이후 성은건설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의혹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역에서 어떠한 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결위원 활동마저 의혹의 대상이 된다면 주민을 대표해 행정부의 견제와 감독의 책무가 있는 지방의원의 활동을 위축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나기학 의원은 “도의원 당선 이후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빠짐없이 신고했다”며 “전주MBC 보도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으며, 정정 보도를 요청한 상태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에는 내용을 소명했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고 강조했다. 끝으로 나기학 의원은 “도의원 당선 이후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빠짐없이 신고했다”며 “전주MBC 보도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으며, 정정 보도를 요청한 상태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에는 내용을 소명했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 발전의 책임자”



①전주지역 정치신인 6명이 12일 전북도의회 광장 앞에서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의원들은 “전북발전 위해 민주당 협조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②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북도전서비스 동호회 회원 200인이 “전북지사 출마 예정자인 안호영 의원은 공역시급 예산과 권한으로 전북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룰 정치인이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유호상 기자



①전주지역 정치신인 6명이 12일 전북도의회 광장 앞에서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의원들은 “전북발전 위해 민주당 협조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②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북도전서비스 동호회 회원 200인이 “전북지사 출마 예정자인 안호영 의원은 공역시급 예산과 권한으로 전북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룰 정치인이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유호상 기자

“경제적 약자 청년·어르신 사회복지 강화”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가 경제적 약자인 청년과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 출마예정자는 12일 정책발표를 통해 청년에게는 건전한 문화생활을, 어르신들에게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출마예정자에 따르면 청년의 경우 ‘청년문화행복카드’를 분기별 10만 원씩 연간 총 4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전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청년 9만9,880명(2021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 기준)이다.

이 카드는 전주에서 영화, 연극 스포츠 관람이나 도서 구입에 쓸 수 있다. 온라인 구매나 소비는 불가능하고 전주지역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20대 청년들의 바깥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도심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출마예정자는 “청년문화행복카드



는 문화도시 전주에 걸맞은 전주형 청년 문화 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라며 “청년의 문화기반권을 보장하고 전주의 문화·여가 시장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르신들에게는 난청과 치아결손 해소를 위해 보청기와 의치(틀니)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다. 보청기는 35만 원 범위 내에서 실구입비율, 틀니(완전·부분틀니 모두 포함)는 본인부담금 중 25만 원 이내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다.

임 출마예정자는 “경제적 약자인 청년과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비서실별 참모들과 기념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모든 청와대 참모진들과 기념사진 한 장 찍을 남기기로 했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13일 두 차례에 나눠 순차적으로 각 비서실별 참모진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사유로 청와대를 떠나는 참모들과는 개별적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해 왔다.

퇴임을 한 달 미만 앞두고 이뤄진 이번 기념사진 촬영은 청와대 근무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동안 고생한 참모진들과 ‘문재인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추억을 간직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대통령비서실 직제상 청와대 근무 직원은 정부부처 파견 인력을 포함해 총 443명에 달한다. 국가인보실·경호처 등을 포함하면 500여명 규모를 넘는다. 물리적 여건상 하루에 모든 직원들과의 촬영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3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각 수석실별 직원들과 단체 사진을 촬영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